

광주경제단체, GGM 노조 노사민정 중재안 수용 촉구

광주상의·광주경총·GGM 주주단 등 “노사상생 정신 지켜야”

35만대 달성까지 파업 유보 등 안정적 생산·수출 협력 요구

광주지역 경제단체들이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에 대해,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GGM 주주단 역시 중재안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상생의 상징으로 출범한 GGM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경영자총협회는 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GGM 노조는 위원회 중재안을 수용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조는 지난 2일 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GGM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재안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또 “이번 중재안은 갈등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반영하고, 광주형 일자리의 설립 취지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된 것”이라며 “상생·화합·미래지향이라는 3대 원칙을 토대로 한 노사민정 대타협 정신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구성된 만큼, 노조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GGM 경영진은 노조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여전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특히 ‘35만 대 생산 목표 달

성 시까지 파업을 유보한다’는 조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GGM 설립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완성차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GGM은 캐스퍼 전기차의 유럽·일본 수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 안착을 모색하고 있다”며 “노조는 GGM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중재안을 수용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위원회는 GGM 설립의 근간이 되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를 전제로, 노조에는 ▲누

적 생산 35만 대 달성 시까지 파업 유보 ▲생산 물량 확대 협력 ▲2교대 근무 수용 등을 권고했고, 경영진에게는 ▲노조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 공제 ▲근로복지기금 출연 확대 등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해당 중재안을 수용했으며, GGM 경영진 역시 일부 내용이 노사상생협정서 취지와 다소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중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 측은 “35만 대 달성 전까지 파업을 유보하라”는 조항에 반발하며 중재안 수용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상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팔 걷었다

광주시 기업 지원 통합 설명회

국비 38억 등 50억 예산 투입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가 지역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선다.

광주상의는 8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광주시 기업 지원 통합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밝혔다.

설명회에는 광주지역 가전·자동차·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 임직원 등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원하는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중 하나로, 국비 38억원 등 총 50억원이 투입된다.

각 기관 사업 담당자들은 설명회에서 지역혁신 프로젝트, 지역형플러스일자리사업,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지원 등을 소개하고 개별 상담까지 진행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가전산업 기업 인증 및 수출 지원’과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기업 지원 종합서비스 사업’ 등은 설명회 참여 기업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제두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 가전·자동차·뿌리산업 등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도록 힘쓰겠다”며

“기업은 성장하고, 노동자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전남도 IT 전시회 ‘CES 2026’ 참가 기업 모집

21일까지 12개 기업 선발

전남도가 내년 초 개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 전시회 ‘CES 2026’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지난해 전남도가 CES 참가를 지원한 도내 22개 기업은 500억원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뒀는데, 도는 CES를 지역 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의 핵심 축으로 보고 올해 역시 지원에 나선다.

전남도는 오는 21일까지 CES 2026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기술력과 혁신성을 기준으로 12개 기업을 선발한다. CES 참가 지원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CES 혁신상 수상 전략 컨설팅 ▲글로벌 바이어 맞춤형 IR 프로그램 ▲벤처캐피탈(VC)과의

네트워킹 ▲현장 통역 및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전남도는 또 인공지능과 에너지, 우주항공, 디지털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CES 전시와 수출 상담, 투자 유치까지 지원하는 ‘전남형 수출 촉진 패키지’를 제공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CES 2024와 CES 2025에 총 22개 도내 기업을 참가시켜, 단순 상담이나 MOU 체결을 넘어 실제 수출 계약 및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는 성과를 이끔면서 CES 참가 지원의 실효성을 입증했다”며 “CES 2026에서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도록 맞춤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고령 사회 고령층 계속 일하게 하려면 정년 연장보다 퇴직후 재고용이 효율적

한은 ‘고령층 계속근로’ 보고서

인구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층들의 계속 근로를 위해서는 ‘정년 연장’ 방식보다 임금 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고용연구팀과 조사총괄팀,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작성한 ‘초고령 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BOK 이슈노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 방식을 도입했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고령 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년 연장으로 인해 55~59세 임금 근로자의 고용률은 1.8%p(8만명) 증가했고, 55~59세 상용 근로자 고용률도 2.3%p(10만명) 증가했다. 반면 23~27세 연령대에서는 임금 근로자 고용률과 상용 근로자 고용률이 각각 6.9%(11만명), 3.3%(4만명) 감소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임금 체계의 변화 없이 정년 기간만 연장하게 되면 고령 근로자가 증가하게 되자 비용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고령 상용 근로자 고용률의 상승폭이 컸던 것은 노동조합을 통해 고용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대기업에서 정년 연장 혜택이 몰렸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인 만큼, 청년 일자리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줄어들게 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정년을 앞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새로운 임금 체계로 다시 계약하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청년 고용을 개선하면서, 고령층의 계속근로를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의실험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해지면 향후 10년간 0.9%~1.4%p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도입되면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의 3분의 1 가량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 개인은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보다 월 소득 179만원이 늘어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건설경기 ‘심각’... 지난해 광주 건축 착공 전년비 반토막

주거·비주거 모두 큰 폭 하락

전남은 주거·비주거 소폭 증가

지난해 광주 건축 착공 면적이 주거·비주거 모두 감소하는 등 지역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설연)이 발표한 ‘건설 동향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건축 착공 면적은 전년보다 56.4% 줄었다. 주거용 64.8%, 비주거용 46.4%가 각각 감소했다. 광주는 2023년 62.9% 증가한 뒤 감소세로 돌아

섰다. 반면 전남은 전년보다 8% 올랐으며, 세부적으로 주거용 22.7%, 비주거용 2.9% 상승했다. 산건연은 건축 착공 감소한 곳 대부분이 2~3년 이상 장기적으로 감소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건축 공사 착공이 감소한 지역은 7개 지역으로, 광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2~3년 이상 착공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산건연은 장기간 건축 착공이 감소한 지역일수록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지역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착공이 증가한 지역은 전남 등 총 9개 지

역으로 조사됐다. 전남·대전·울산 등은 2021~2023년 3년 연속 감소한 뒤 반등했고, 충남·경기·경남은 2022~2023년 2년 동안 침체를 겪은 후 상승했다. 경남·제주 등은 2023년 감소한 후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건축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7930만㎡였다. 수도권은 전년 대비 4.2% 늘어 3580만㎡였으며 비수도권은 지난해보다 5.3% 증가해 4350만㎡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건축 착공 면적은 증가 추세였지만 예년의 70~8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건설연의 설명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2월 경상수지 흑자 역대 3위지만...“4월부터 美관세 영향”

72억달러...22개월 연속 흑자

컴퓨터·의약품·차 수출 호조

서비스·여행 47억 달러 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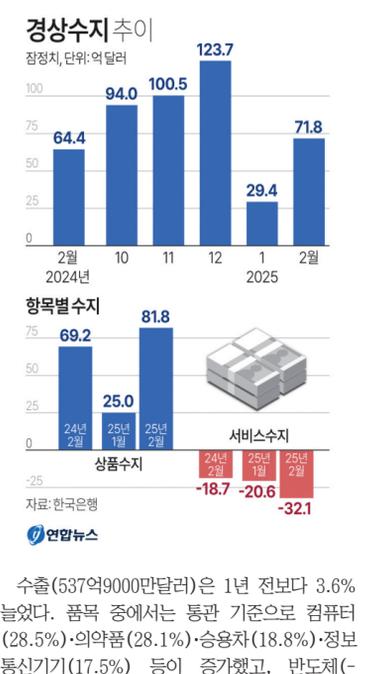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난 2월까지 2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는 71억8000만달러(10조 5582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직전 1월(29억4000만달러)보다 42억달러 이상 많고, 작년 같은 달(64억4000만달러)과 비교해도 흑자 규모가 약 7억달러 커졌다. 지난 1~2월 누계 흑자(101억2000만달러) 역시 작년 같은 기간(94억9000만달러)보다 늘었다.

22개월 연속 흑자는 2000년대 들어 2012년 5월~2019년 3월(83개월), 2020년 5월~2022년 8월(27개월)에 이어 세 번째로 긴 흑자 기록이다. 또 이번 2월 흑자 폭은 같은 달 기준으로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컸다.

항목별로 상품수지 흑자(81억8000만달러)가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25억달러에 그친 전월이나 지난해 2월(69억2000만달러)을 웃돌았다.



2.5%)·석유제품(-12.2%) 등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9.2%)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중국(-1.4%)·일본(-4.8%)·EU(-8.1%) 등에서 고전했다.

수입(456억1000만달러)은 1.3%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32억1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전월(-20억6000만달러)과 작년 같은 달(-18억7000만달러)보다 더 커졌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여행수지가 14억5000만달러 적자였다. 다만 겨울 방학 등이 끝나면서 1월(-16억8000만달러)보다는 적자가 줄었다.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 관련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이 늘면서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도 5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앞으로 문제는 미국발 관세 전쟁이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미국 관세 정책 영향과 관련, “3월까지의 어느 정도 감내가 가능해 관망했지만, 4월 이후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늘고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급격히 나빠진다고는 짐작 시간을 두고 조금씩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방뉴스

탄핵선고 미뤄진 3월 중순 카드사용 감소

2월 말엔 급증하다가 둔화

3월 중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탄핵 선고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통계청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5~21일)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4주 전보다 0.9% 줄었다.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2월 마지막 주(22~28일) 49.8% 급증한 뒤 3월 첫째 주(1~7일) 1.5%, 둘째 주(8~14일)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후 셋째 주 들어 감소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는 3월 셋째 주 기준 숙박서비스업 이용 금액이 4주 전 대비 20.0%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도 14.3% 줄었다.

음식·음료 서비스업은 2.8% 증가했고, 식료품·음료업은 7.0%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도 증가율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2월 마지막 주 23.7%에서 3월 첫째 주 1.6%로 둔화한 후 둘째 주에는 -0.6%를 나타냈다. 다만 셋째 주에는 3.1% 증가하며 소폭 회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변론이 2월 25일 종결됐는데 선고 예상일이 당초 지난달 14일

에서 늦춰지면서 3월 내내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지표를 보면 소비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2월 승용차 판매가 증가세로 돌아섰는데도 전체 소매판매는 작년 동월 대비 2.3% 감소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가 13.7% 늘었으나 준내구재는 6.8% 감소했고 비내구재도 7.5%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설 명절 영향을 배제한 1~2월 평균 기준으로 소매판매는 작년 동기보다 1.1% 감소했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3.4로, 작년 12월의 극심한 위축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도는 수준이라고 KDI는 진단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34.23 (+6.03)
↑ 코스닥	658.45 (+7.15)
↑ 금리(국고채 39년)	2.413 (+0.008)
↑ 환율(USD)	1476.90 (+9.10)

(오후 4시 42분 기준)